

청춘들의 여행이야기…‘SK오일로패스’ 성료

SK에너지 청춘 대상 주유권 제공

SK에너지의 청춘 응원 프로젝트 ‘SK오일로패스’가 청춘들의 행복을 담은 여름 여행 후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SK에너지는 4일 청춘들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SK오일로패스’와 함께 한 여행 인증샷 중 우수작 5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자에게는 아이패드, 에어팟,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여행을 통해 청춘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 6월 ‘SK오일로패스’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25~35세 청춘을 대상으로 전국 3600개 SK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1000명의 당첨자



SK오일로패스 인증샷 모음.

/SK에너지

를 뽑는 행사에 33만여명이 응모하고 20만여개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등록됐다.

이운희 리테일사업부장은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을 응원해 우리

사회의 행복을 같이 키우기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청춘을 응원하고 행복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감원 전통시장서 추석 맞이 나눔활동

한국구세군·금융권과 남구로시장 찾아

금융감독원은 5일 추석을 맞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구세군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KB손해보험, 신한카드 등이 같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과일·육류·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

입하고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40여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날 남구로시장에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금융권이 마련한 작은 정성이 시장 상인에게는 응원이 되고 우리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추석을 맞아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금감원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오늘의 운세 9월 6일(음 8월 7일)



36년생 항상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40년생 넘치게 좋은 하루. 60년생 파리가 꾸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72년생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랠지 않는다. 84년생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37년생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간다. 49년생 곧 그칠 비라도 일단 피하고 보자. 61년생 호사다마이니 마음을 비워라. 73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 85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신용을 잘 지키도록.



38년생 목이 마르면 직접 우물을 파라. 50년생 진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니 침묵. 62년생 된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신념이 중요. 74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선택. 8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39년생 사람 앞에서 돈 자랑 하지마라. 51년생 자녀는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자. 63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7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40년생 좋은 것은 포기하지 마라. 52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64년생 최소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76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 88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주의해야 할 터.



41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53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65년생 믿는 도끼에 벌등 찍히지 않도록 문서를 잘 살펴라. 77년생 자존심이니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89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다.



42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54년생 길 끝나는데 신발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6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마음만 다친다. 78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90년생 자신만 믿기면 한발자국의 진보도 있다.

4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하다. 55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어 이득을 본다. 67년생 친척과의 대화로 마음이 상한다. 79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9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44년생 순풍에 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6년생 상대의 마음을 엿는 열쇠는 당신 손안에. 68년생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자. 80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92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부단한 노력이.

45년생 둘을 얻기 위해 하나는 기쁘게 양보. 57년생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돌보자. 69년생 비정상적인 만남은 반드시 멀笙. 82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 93년생 지나친 관심은 누구라도 지치게 한다.

46년생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58년생 결과부터 쟁기지 말고 계획을 세워 차근히 처리. 70년생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일하라. 82년생 예민한 날이니 외출을 삼가. 9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그저 선망의 대상일 뿐.

47년생 결실이 보이니 강하게 나기라. 59년생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울 운이니 횡재수. 71년생 실력과 분수를 알고 처신하라. 83년생 지나친 자존감은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95년생 기본을 지키면 좋은 성과가 따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魄!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5	7	6	1				
9						6		
8	3	9	2		5			
3		8	9				2	
2					6			
	1	6	7	8				
	9	1	5					
3			2					
8					4			

	6		5	2		7		
9			3			4		
5			2		3		9	
8	7		5	6		2		
			8				5	
1		7				6	5	
4	5	3	7				8	
1			6			7		
9	7	4	5	9	2	1	7	

스도쿠 정답								
8	1	2	5	7	3	6	9	4
4	5	3	9	6	8	2	7	1
6	7	9	2	1	4	5	3	8
5	9	1	6	2	7	8	4	3
7	2	8	4	3	1	9	6	5
3	6	4	8	5	9	7	1	2
1	8	6	3	9	2	4	5	7
9	4	7	1	8	5	3	2	6
2	3	5	7	4	6	1	8	9

문제 제공= **문제 제공= 문화일보**



제주항공

‘뉴클래스’ 좌석 할인 프로모션

제주항공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서비스인 ‘뉴클래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오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기점 싱가포르와 담양, 타이베이, 도쿄, 후쿠오카 노선에서 ‘뉴클래스’ 좌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 금액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9일까지 진행한다.



제주항공이 ‘뉴 클래스’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항공

이 프로모션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며 ‘뉴 클래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폰이 자동 적용된다. ‘뉴 클래스’는 기존 189석의 좌석 배치를 174석으로 줄여 좌석 간격을 늘린 새로운 형태의 좌석 12석과 기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162석으로 구성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만트럭버스코리아

신임 A/S 부사장에 데니스 둔슬 선임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1일 신임 애프터 세일즈&서비스(A/S) 부사장으로 데니스 둔슬(사진)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앤노스 헬레 A/S 부사장의 뒤를 이어 새롭게 임명된 데니스 둔슬 A/S 부사장은 지난 2004년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 관련 업체인 HJS 에미션 테크놀로지 마켓&세일즈 부문을 입사해 시장으로 상용차 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HJS 에미션 테크놀로지 마켓&세일즈 부문장을 거쳐 2011년 만트럭버스그룹에 합류, 애프터 세일즈 부서에서 다양한 전략 및 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정연우 기자

김상회의四季

법은 진실로 만인에게 평등한가

신살(神殺) 중에 수옥살(囚獄殺)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다는 기운을 내포한 신살이다. 최근 어느 변호사가 희대의 살인사건을 수임했다가 극렬한 여론에 밀려 어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타까운 진실’이 있어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변호해 보려 했단다. 객관적 증빙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말이다. 때때로 억울하게 진실이 묵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드러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도 그 증거가 조작됐거나 아니면 진실은 그게 아닌데 오도 가도 못하게 증거의 정황에 둑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그렇기에 피의자와 한 두 사람을 빼고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언이 되었다. 그러나 차라리 오늘날은 나은 셈이다. 전제주의 시대 때에는 권력과 힘을